

### “내실 다져 국민의 박물관 만들고 싶어”

국립중앙박물관 신임 김홍남 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이 위탁·관리해오던 2건 20여점의 불교문화재 불교중앙박물관 반환 문제는 ‘종단과 박물관 측과의 긴밀한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8월 8일 단행된 차관급 정부기구 인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임명된 김홍남 전 국립민속박물관장(사진)은 박물관 운영 계획과 포부를 9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국립박물관 역사상 최초의 여성 관장” “비박물관 출신 외부 인사로서 첫 번째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김 관장. 또 3년 전, 당시 1급 개방직 직제였던 국립중앙박물관장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전력에 있는 김 관장에 거는 박물관계의 기대는 어느 때 보다도 크다.

“박물관은 박물관다들 때 비로소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문화재를 문화·예술·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박물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 관장이 제시하는 21세기 박물관의 비전은 유물과 문화재 전시라는 기존 박물관의 한계를 뛰어 넘어 ‘역사교육과 문화에 술을 동시에 함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창출’이다. 김 관장은 이 같은 계획과 포부

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해야 할 과제로 △추진력 있는 박물관 정책과 투명한 예산 △전국 박물관 학예실과의 유기적인 정보네트워킹 조성 등 의뢰와 내실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박물관 간접자본을 꼽았다.

“얼마나 많은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컬렉션을 가지고 얼마만큼 창의적인 기획 전시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컬렉션과 결합된 역사 교육과 기획 전시·공연 프로그램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김 관장은 “그동안 박물관이 소위 엘리트 중심의 닫힌 공간이라는 평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며 “동양의 미소라고 일컬어지는 반가사유상과 민각(대중적인 조각)의 대표격인 수종사 나한상 등 불교문화재 특별 기획 전시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 생명나눔실천본부, 난치병 환우에 지원금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는 우란분절을 맞아 8월 7일 조계사 설립전에서 난치병 환우들 기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고대 구로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장희씨(28·마비성 척추측만증), 경주 동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상숙씨(54·뇌경색)를 비롯한 15명이 각각 2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일민 스님은 “백증을 맞이해 조상 천도 위주의 소극적 실천에서 벗어나 투병 중인 환우를 살리는 적극적인 방안을 실천하고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조계사 설립전에서 난치병 환우 가족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매달 환우들을 통해 지원하고 남은 금액과 기탁자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돈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1월에 있을 ‘자선음악회’를 통해 나머지 모금액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인권 주제 청소년 캠프 ‘천상천하...’ 열려

부처님의 탄생 선언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담긴 인간존중 사상과 인권을 주제로 한 청소년 캠프가 열렸다.

불교인권위원회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한 ‘2006 청소년 인권캠프’가 그것. 전국에서 청소년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청소년의 눈높이



에서 인권을 바라볼 수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천태종 새 스님 18명 탄생



천태종은 8월 7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금강계단에서 2006년 승려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비구 6명, 비구니 12명은 심선계를 받고 불제자로써 거듭났다. 수계산림은 종정 도용 스님을 증명법주로, 정산 총무원장, 도정 종회의장, 준광 감사원장과 총무원 각 부장 스님을 삼사절장으로 봉행했다.

###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화엄사서 여름수련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신연섭)는 8월 2-3일 구례 화엄사에서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자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불교사 180여명이 참석해 자비명상, 연기암 순례 등을 펼쳤다. 신연섭 회장은 “수련회를 통해 회원들의 친목과 신심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황룡사,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단 초청법회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단 30여 명이 8월 10일 천태종 인천 황룡사주지 무원을 방문했다. 이날 무원 스님은 “동티모르의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기가 되고, 전 세계가 나눔을 통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하며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 한솔복지관 평창지역 수해복구에 구슬땀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화)은 복지관 직원과 장안사 신도회 30여명으로 구성된 수해복구단을 8월 3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투입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자들은 수해로 휴터미에 완전히 물러버린 논밭에 모종을 다시 심는 복구활동을 하고, 수재민에게 200만원 상당의 쌀과 떡, 김치를 전달했다.

### 나눔의 집, 인권캠프 ‘피스로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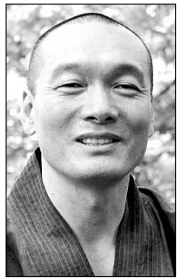


나눔의 집(원장 능광)에서 한·일 대학생이 함께하는 인권캠프 ‘제9회 피스로드(Peace Road)’가 8월 7-12일 열렸다. 한국대학생 14명과 일본대학생 12명이 참가한 이번 피스로드캠프에서 양국 대학생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역사와 인권에 대한 이해를 깊혔다.

### 어린이 포교 원력 위해 그림수행 30년

부산서 첫 ‘자연으로의 회귀전’ 여는 성타 스님

성타 스님(사진)은 30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다. 한국화 문인화 등의 그림으로 수행을 삼아온 성타 스님은 6년 전 어느 날 절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무심코 빵을 건넸다.



빵을 내미는 스님을 보고 아이들이 도망쳤다. 이유는 ‘스님은 사탄’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충격으로 스님은 그림을 통한 어린이 포교를 시작했다. 절문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 10명중 9명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에 불교를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서예, 한문, 사군자 무료 강습을 시작했다. 주부들을 위한 서예교실도 열었다. 이후 아이들에게 그림지도와 함께 재미난 불교 이야기와 참선 등으로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 합장 인사하는 결실을 일궈냈다.

현재 범어사 금강암에서 머물며 천일기도 중인 성타 스님은 어린이 포교 원력을 새롭게 다지며 부산에서의 첫 전시회를 연다. 8월 21-26일 부산시청 갤러리2층 1관에서 열리는 ‘효산당 성타 자연으로의 회귀전’에서 국전에서 특선을 차지한 작품을 비롯 연꽃, 만행, 삼진경의 산 그림자 등 6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051)508-2917 천미희 기자

### 서울 삼광사, 쌀 108포 소년가장·수재민에 전달

서울 삼광사 주지 일경 스님이 8월 5일 열린 천도재와 ‘뽕뽕 뽕뽕’을 통해 모인 동참금으로 쌀 108포대를 마련해 그 중 100포대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8일 전달했다. 나머지 쌀은 각각 봉천9동 동사무소 ‘사랑의 쌀 운동본부’와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했다(사진). 소년소녀가장에게는 각 20만원씩의 장학금도 함께 지원했다.



일경 스님은 “법회에 일체의 화환을 보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대신 그 돈으로 수재민을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에 동참하자고 신도들에게 호소하자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뜻을 보였으며 ‘이번 쌀이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 서울 능인정사, 구내 저소득층에 자비의 쌀

서울 능인정사 포교원(주지 법경)은 7월 31일 이호주 서울 성동구청장과 정승하 광진구청장 취임법회 및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자비의 쌀은 20kg 쌀 50포대로, 구내 저소득층 및 수해지역 가구에 지원된다.

### 이성훈 불레협 연구위원 골수백혈병으로 별세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이성훈(41·고려대 박사과정 재학중) 연구위원이 8월 7일 급성 골수성백혈병 항암치료중 심장마비로 숨졌다.

영결식은 9일 고대 안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으며,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한 뒤 유골은 9월 24일 49재가 열린 목동 법안정사에 안치됐다.

이성훈씨는 불교계 최초의 1급 청소년 지도사로 불교레크리에이션을 보급하는 등 20여년간 어린이 포교에 헌신해 왔다.

김원우 기자

## ‘서로 모여 부처님의법을 듣고 토론합니다’ 원각사 재가논강(在家論講)

원각사에서 예수제기간동안, 재가불자들이 평소 수행생활을 함에 있어 접하고 행하는 수행 방법에 대해 『불자들 수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놓고 1주일에 한번씩 총 6회에 걸쳐 각각 소주제를(육바라미) 정하고 그에 따른 논주(論主)와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재가논강을 봉행합니다.

- 주 제 : 재가불자 수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불기2550년(2006년) 8월 11일 ~ 9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9시)
  - 대 상 :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동참비 무료)
  - 논주(論主) :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순규 의학박사, 이호근 법사, 박건주 전남대교수, 이희재 광주대 교수, 송광사 율원장 지현스님
  - 장 소 : 원각사 대웅전
  - 주 최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 후 원 : (주)BBS광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 ※ 발제 40분 / 토론 50분 / 토론자 2인(신행단체) / 총 진행 : 이종표 전남대 교수
  - 보살 수계식 동참비: 2만원, 송광사 율원장스님께서 수계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수행 결사반을 모집합니다
- 생전예수제를 지내는 49일 동안 수행과 수행, 참회와 공덕행을 쌓는 결사(結社)모임을 만들고 수행을 혁신하기 위해 청규를 제정, 지키도록 함.
- 기간 : 생전예수제 기간(49일)  
내용 : 매일 사시기도후, 저녁 공양후 각각500배씩(지도법사:주지스님) 사경, 독경은 매주 재가 끝난 후 원각루 2층(지도법사:설몽스님)

■ 생전예수제 안내

불기2550년 음력 7월 윤달을 맞아 원각사에서 살아생전 진 빛, 즉 업을 죽기 전에 잘 닦아서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죽음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행의식인 생전예수제를 봉행합니다.

● 49재 | 입재 : 2006년 8월 05일 토요일 오전 10시  
회향 : 2006년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 매주 금요일 마다 재를 일곱번 지내고, 동참비는 1인 10만원, 가족 30만원입니다.

● 영산재 : 초재, 3재, 5재, 막재에 영산재를 봉행합니다.

● 9월 4일 월요일 윤달 삼사순례가 있습니다.

장 소 : 서울 봉은사, 구룡사, 능인선원  
출 발 : 원각사 앞에서 7시 30분  
동참비 : 3만원  
접수 및 문의 : 원각사 종무소 062)223-3168